# 골프&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스크츠*동아

## 3년만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 각지서 종목별 대회로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대 회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3년 만에 개최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 산으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는 개최지 없이 종목별 대 회로 진행한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은 전국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 축제로, 생활 체육 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대축전은 전국체육대 회 개최지에서 2년 후 개최되지만 2020년 전국체전 순 연으로 인해 올해 대축전은 개최지 없이 전국 각지에서 종목별 대회로 11월까지 열린다.

개최 종목은 총 43종목(정식 40, 시범 3)이다. 5월에 는 사격·합기도·스쿼시 종목이 열렸으며 6월에는 육상 ·게이트볼·택견·자전거·축구·야구 종목이 개최된다. 7월에는 테니스·볼링·빙상·궁도·배구·롤러·골프 종목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대축전이 지난 2년간 침체되었던 생 활체육 활동을 부흥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 찬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장협, 청렴 사회 협약



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 쪽부터)

대한체육회가 전국 시도 체육회장협의회(회장 김덕 호)와 13일 진천 국가대표선 수촌에서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시도체육 회 청렴 사회협약을 체결했 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 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 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 른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대한 협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청렴학교' 참여 등을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협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자율·책임 ·소통의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주도의 부패통제보 다는 민간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버넌 스적 방법에 의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전략 인 청렴사회협약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청렴으로 체육계를 선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과 새 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 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청렴사회협약을 계 기로 체육회 종합청렴도 제고 및 취약 부문을 개선하는 양형모 기자 데 힘쓸 계획이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오늘 개막 US오픈 관전 포인트





1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의 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연습라운드에 참여한 로리 매킬로이(왼쪽)와 필 미켈슨, 16일 개막하는 올 3번째 메이저대회 '제122회 US오픈'에선 매킬로이 등 'PGA 잔류파'와 미켈슨 등 '사우디 이적파'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

# PGA 잔류파 vs 사우디 이적파

美골프협, 사우디행 선수 출전 허용 미켈슨·존슨·가르시아 등 대거출전 매킬로이·욘 람·토마스 등 잔류파 수적·성적 우위지만 신경전 팽팽 충돌 우려…1·2R 나눠서 조 편성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프로골프(P GA) 투어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 F)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 골프) 출범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PGA 잔류파'와 '사우디 이 적파'가 한 무대에서 맞붙는다.

16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매사추세 츠주 브루클린의 더 컨트리클럽(파70) 에서 개막하는 올 3번째 메이저대회 '제 122회 US오픈'에는 PGA 투어 소속 선 수들과 LIV 골프에 합류해 PGA 투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PGA 투어는 지난주 끝난 LIV 골프 1차 대회에 출전한 17명 선수들에게 PG A 투어 주관 대회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추후 LI V 골프에 합류할 선수들도 같은 징계가 람(스페인), 올해 앞서 열린 메이저 대회 적용된다.

그러나 US오픈은 PGA 투어가 아닌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한다. US GA는 기존에 출전 자격을 확보한 선수 라면 LIV 골프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나 올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필 미켈 슨, 더스틴 존슨, 케빈 나(이상 미국), 세 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사우디파 선수들도 이번 US오픈에 참가한다. 6월 말 열리는 LIV 골프 2차 대회 출전을 공 언한 브라이슨 디섐보, 패트릭 리드(이 상 미국)도 나선다. 다만 LIV 골프 1차 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샬 슈워츨(남아 공)은 출전 자격이 없어 나오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PGA 잔류를 선택한 선수 들이 수적으로나 최근 성적으로 봤을 때 월등하다. 지난주 RBC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한 'PGA 파수꾼' 로리 매킬로이(북 아일랜드)를 비롯해 '디펜딩 챔피언' 욘 우승자 스코티 셰플러(미국·마스터스), 저스틴 토마스(미국·PGA 챔피언십) 등 우승 후보들이 즐비하다.

PGA파와 사우디파는 각각 "의리를 저버리고 반(反) 인권국가의 돈을 좇아 갔다", "개인의 권리다. 잔류파는 PGA 수뇌부에게 세뇌당했다"고 주장하며 팽 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 를 앞두고 매킬로이는 "PGA 투어를 발 전시킨 선배들의 뜻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미켈슨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고 여 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갤러리도 입 장하는 상황이라 대회 중 어떤 돌발 사

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USGA는 1·2라운드 조편성에서 PGA 투어와 LIV 골프 소속 선수들을 가급적 떼어놓았다.

사우디파를 '공개 저격'하고 있는 매 킬로이는 16일 오후 8시40분 잰더 쇼플 리(미국),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함 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둘 모두 PGA 투어 잔류를 선택한 선수들이다. 반면 17일 오전 2시47분 출발하는 미켈슨은 LIV 시리즈에 합류한 루이 우스트히즌 (남아공), 셰인 라우리(아일랜드)와 함 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라우리는 LIV 골프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나는 골프 선수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며 LIV 골프 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임성재 (24)를 비롯해 김시우(27), 이경훈(31), 김주형(20) 등 총 4명이 출전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 KPGA 함정우, 메인스폰서 대회서 시즌 첫 승 도전

오늘부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아낌없는 지원,우승으로 갚겠다"

함정우(28)가 자신의 메인스폰서가 주 최하는 대회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함정우는 16일부터 나흘간 강원 춘천시 에 있는 남춘천CC 빅토리·챌린지코스(파 72)에서 펼쳐지는 2022시즌 한국프로골프 (KPGA) 코리안투어 8번째 대회 '하나은 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우승상 금 2억 원)에 출전한다.



함정우

에 데뷔한 국가대표 출 신 함정우는 지난해 17개 전 대회에 출전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 테이셔널에서 통산 2승을 따내고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덕분에 제네시 스 포인트 3위, 상금 5위 등 각종 타이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기대치에 비해

2018년 코리안투어 조금 아쉬운 편. 5월 열린 우리금융 챔피언 들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십 공동 4위 등 톱10에 2번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지난주 열린 KPGA 선수권대회에 선 시즌 첫 컷 탈락의 아쉬움을 맛보기도

>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함정우는 "메인 스폰서 대회라서 그런지 설렌다. 골 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나금융그 룹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대회에 임하 겠다. 우승으로 메인 스폰서에 대한 고마

움을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슬 로건인 'ALL NEW START'처럼 이번 대 회서 뜻 깊은 기록을 작성하며 우승을 만

한편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이 태훈(32)을 비롯해 지난주 KPGA 선수권 에서 3·4라운드에만 16언더파를 몰아치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신상훈(24) 등 총 144명이 출전한다. 일본투어에서 활동 중 인 류현우(41)와 송영한(31)은 올 시즌 처 음으로 국내 무대에 출격한다. 류현우는 2020년 8월 KPGA 선수권 이후 1년 10개 월, 송영한은 지난해 9월 신한동해오픈 이 후 9개월 만의 코리안투어 출전이다.

김도헌 기자

####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	탸	1 7	' 록	실									<b>〈</b> 1	4일	<b>&gt;</b>
• <b>튿</b>	[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SSG	63	39	21	3	0.650	-	1패	0.250	3.54	0.733	287	239	43	41	42
2	키 움	62	37	24	1	0.607	2.5	2승	0.245	3.44	0.483	270	250	42	36	49
3	L G	62	35	26	1	0.574	4.5	2승	0.263	3.72	0.471	311	256	48	42	46
4	K I A	60	32	27	1	0.542	6.5	1패	0.269	3.99	0.467	316	279	54	36	49
5	КТ	62	29	31	2	0.483	10.0	1승	0.247	3.50	0.393	248	247	41	44	43
6	삼 성	61	29	32	0	0.475	10.5	1패	0.257	3.75	0.419	259	279	36	50	59
7	두 산	60	28	31	1	0.475	10.5	2패	0.255	4.06	0.393	287	280	33	49	60
8	롯 데	60	26	32	2	0.448	12.0	1승	0.254	4.01	0.323	236	273	44	23	54
9	N C	61	23	37	1	0.383	16.0	1패	0.248	3.85	0.367	237	265	39	35	58
10	한 화	61	22	39	0	0.361	17.5	4패	0.242	5.31	0.414	260	343	40	48	62
•팀	l간승I	대-E	남은	경기	7											

	팀	KT	두산	삼성	LG	키움	SSG	NC	롯데	KIA	한화
	KT		2-0-3	3-0-2	4-0-2	2-1-6	3-0-4	4-0-2	5-0-4	5-1-3	1-0-5
	두산	11		2-0-5	4-0-5	4-0-3	1-1-4	4-0-2	3-0-3	2-0-4	5-0-3
	삼성	11	9		2-0-5	1-0-5	2-0-4	4-0-5	5-0-4	3-0-3	5-0-1
	LG	10	7	9		3-0-3	4-0-5	5-0-1	1-1-4	5-0-2	5-0-1
	키움	16	16	16	16		2-0-4	5-0-1	4-0-1	4-0-5	5-0-3
	SSG	9	10	10	7	10		3-1-4	4-1-1	5-0-1	6-0-3
	NC	10	10	7	10	10	8		3-0-5	2-0-4	3-0-3
	롯데	7	10	7	10	11	10	8		1-0-4	3-0-3
	KIA	7	10	10	9	7	10	10	11		6-0-0
	한화	10	8	10	10	8	7	10	10	10	
-			( 6	능 -무- I	* 팀간	경기없음	<u> </u>				

•E	·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피렐 라	삼 성	0.375	58	224	84	10	43	40	6	30	24	3	0.391	1.047
2	이 대 호	롯 데	0.353	58	224	79	8	24	28	0	15	26	0	0.288	0.894
3	소크라테스	KIA	0.337	60	243	82	11	45	44	7	16	42	1	0.309	0.965
4	박건우	N C	0.331	49	169	56	3	20	30	0	22	26	3	0.309	0.846
5	이 정 후	키 움	0.326	60	230	75	9	35	41	2	31	12	0	0.377	0.920
6	손 아 섭	N C	0.324	61	241	78	3	28	19	4	26	37	1	0.316	0.824
7	박성 한	${\tt SSG}$	0.317	60	205	65	2	28	24	5	27	34	10	0.367	0.787
8	홍창기	L G	0.315	54	213	67	1	39	28	4	37	35	1	0.404	0.803
9	조용호	ΚТ	0.312	60	205	64	1	22	12	2	24	40	0	0.190	0.774
10	페르난데스	두 산	0.308	58	234	72	5	29	35	0	19	24	1	0.286	0.790
11	허경 민	두 산	0.307	56	199	61	2	31	35	6	26	19	6	0.314	0.785
12	최 지 훈	SSG	0.306	63	242	74	3	40	23	13	25	40	0	0.354	0.794
13	터크먼	한 화	0.304	61	240	73	3	39	14	13	27	48	2	0.205	0.793
14	나성 범	K I A	0.304	60	227	69	9	42	39	3	42	59	2	0.321	0.908
15	안 치 홍	롯 데	0.301	56	226	68	10	35	27	2	22	22	4	0.174	0.864
<u>~</u> =	점권 타		2루 3년		2루	1.3	= 2.	.3루	마루	ЛE	- 유	OPS	: 축토	육수정	LEI육

•평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평균자책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김광현	SSG	1.39	11	71.0	16	11	6	1	0	47	2	71	19	0.184	0.92
2	루친스키	N C	1.85	13	87.2	25	18	5	4	0	67	3	93	14	0.207	0.89
3	폰 트	SSG	1.97	13	87.0	20	19	7	4	0	52	5	79	14	0.169	0.74
4	뷰 캐 넌	삼 성	2.36	13	84.0	26	22	5	3	0	84	3	67	24	0.258	1.23
5	수아레즈	삼 성	2.38	13	75.2	27	20	2	5	0	66	3	65	25	0.232	1.18
6	양현종	KIA	2.45	13	77.0	29	21	6	2	0	63	4	58	20	0.223	1.05
7	고영표	ΚТ	2.49	12	83.0	24	23	4	5	0	73	2	78	21	0.236	1.01
8	요키시	키 움	2.52	13	82.0	26	23	7	4	0	69	4	77	11	0.230	0.95
9	켈 리	L G	2.57	11	66.2	22	19	7	1	0	56	4	60	18	0.226	1.08
10	반 즈	롯 데	2.60	14	90.0	33	26	6	4	0	76	4	84	32	0.227	1.09
жп	※ <b>피타율</b>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 ÷ 이닝															

메이저리그											<b>〈</b> 1	5일	<b>&gt;</b>
•0H	메리칸리:	<b>1</b>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	7	승	패	순위	서부기	디구	승	패
1	뉴욕Y	45	16	1	미네소타		36	28	1	휴스턴		38	24
2	토론토	36	25	2	클리블랜	드	30	27	2	텍사스		29	32
3	탬파베이	35	26	3	시카고W		29	31	3	LAA		29	34
4	보스턴	33	29	4	디트로이	트	24	37	4	시애틀		28	34
_5_	볼티모어	27	36	5	캔자스시	티	20	41	5	오클랜.	Ξ	21	42
•내,	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	7	승	패	순위	서부기	디구	승	패
1	뉴욕M	41	22	1	St.루이스	_	37	27	1	LAD		38	23
2	애틀랜타	36	27	2	밀워키		34	29	2	샌디에	이고	39	24
3	필라델피아	31	31	3	피츠버그		24	37	3	샌프란	시스코	35	26
4	마이애미	28	32	4	시카고C		23	38	4	애리조	나	29	35
_5_	워싱턴	23	41	5	신시내티		23	39	5	콜로라.	도	27	35
•경	기결과												
	LAD	2-0		LAA			애틀	랜타		10-4	워싱	턴	
	신시내티	5-3 〈연장12호	1>	애리	조나	클	리블	랜드		4-3 [장10회》	콜로	라도	
- 1	마이에미	11-9		필라	델피아		휴	스턴		4-3	텍사	스	
	뉴욕M	4-0		밀워	7		시	애틀		5-0	미네	소타	
S	t.루이스	3-1 (DH1)		피츠	버그	S	St.루	이스		9-1 (DH2)	피츠	버그	
+	볼티모어	6-5		토론	토		보	스턴		6-1	오클	랜드	
	시카고W	5-1		디트	로이트	샌	디에	이고		12-5	시카	고C	
샌프i	란시스코	4-2		캔자:	스시티		h	·육Y	,	2-0	탬파	베이	

경기예	고										
프로야	구				〈16일〉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	〈창원〉	<b>NC</b>	<b>롯데</b>	〈대전〉	한화 (-)						
오후6시30분,	MBC SPORTS+		오후6시30분, SBS SPORTS								
<b>두산</b>	〈고척〉	키움 (-)	SSG (-)	〈수원〉	<b>KT</b>						
오후6시30분,	KBS N SPORTS		오후6시30분,	SPOTV2							
<b>삼성</b>	〈잠실〉	<b>LG</b>									
오후6시30분,	SPOTV										

<b>아마추어 경기</b> (16일									
역도 ●전국선수권대회(10시·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								
<b>테니스</b> ●제1차 한국실업연맹전(충주탄금	대테니스장)								
하키 ●제65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9시 기장)	·제천청풍명월하키경								
볼링 ●브런스윅 맥스컵 프로대회(13시 경기장)	50분·화성마인드볼링								
소프트테니스 ● 제58회 국무총리기 전국대회	회(10시·옥천돔구장)								